

성별과 세대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Motivations of Parenthood & Perceptions of Low Fertility
according to Sex and Generation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학전공

석사과정 안 은 진

석사과정 최 효 진

조 교 수 유 계 숙*

Majored in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Master Course : Ahn, Eun-Jin

Master Course : Choi, Hyo-Jin

Assistant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and married adults' perceptions of the current low fertility and their motivations of parenthood. It also verifies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numbers of planned children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100 unmarried undergraduate students and 100 married adults. The measurement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o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traditional-normal and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s of parenthood than men did. College stu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motivations of parenthood to strengthen biological family ties than married adults did, while adults reported higher levels of marital bond-strengthening, traditional-normal, and gene-preservative motivations of parenthood than students did. College students attributed the current low fertility to the tight labor market and high costs of childbirth and rearing, while married adults attributed to gender-discriminating traditional family norms, increasing infertility, and poor conditi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Female and adult respondents took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current low fertility more seriously than their counterparts did.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low birthrate), 부모됨의 동기(motivations of parenthood), 대학생(college students), 성인(adults)

* 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가족 계획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억제정책을 병행 실시하였다. 선진국에서 200~300년 걸린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달성하고 선진국 경제 수준으로 진입하였으며, 과거의 인구 억제정책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출산율로 인하여 최근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서 1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출산전환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3명으로 미국(2.05명), 영국(1.74명), 프랑스(1.90명), 독일(1.37명)은 물론 출산율이 낮은 일본의 1.25명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IMF 이후 경제위기로 인하여 나타난 일시적 저출산 현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새천년을 맞이한 즈문동이 출산,¹⁾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효과로 급락하던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낙관적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1983년 이래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사실은 그간의 출산율 저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갑지 않은 전망을 하도록 한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결혼을 저하와 만혼화 경향,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감의 증가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즉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인구의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비용 증가, 국가 경쟁력 쇠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사회보장, 노동시장, 아동의 양육환경, 노인과 장애인 보호의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연구(김승권, 2003; 안명옥, 2004; 이삼식 등, 2005; 장보현·유계숙, 2006; 최숙희·김정우, 2005)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대중매체에서도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생리적·의료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출산을 결정하는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문제이다.

출산에 관한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은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수행이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수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였으며,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김태현 등, 2006).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현재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향후 가족을 형성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예. 청년실업)에 노출되어왔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기성세대와 같이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계획을 전적으로 종속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서 가족형성 여부나 시기를 결정한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태현 등, 2006).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사회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결과중심 정책적 접근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성 평등 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은 미혼자들에게 결혼 및 출산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기혼자에게는 출산시점을 앞당기고 희망 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박수미, 2005). 따라서 가부장적 가치관의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부모됨의 동기나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은 남녀 혹은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됨의 동기는 개인이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와 태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성원의 자녀계획 및 출산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혼자 뿐만 아니라 향후 예비 출산군인 젊은 연령층의 부모됨의 동기를 파악하면 향후의 출산 경향을 간접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녀출산의 동기와 함께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도 앞으로의 출산 경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1) 즈문동이란 2000년생을 말하는 것으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출산을 하기 위해 부부들이 1999년과 2001년에 출산하려던 계획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말한다.

있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과제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출산을 담당할 청년층 대학생들이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인식은 결혼이나 부모됨을 경험한 성인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향후 저출산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집단을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전통적 부양자인 남성 집단 그리고, 향후 자녀출산 결정의 주체인 미혼 대학생과 결혼 혹은 부모됨을 이미 경험한 기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자녀출산의 동기, 저출산의 원인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예비 출산군인 남녀 대학생이 계획하는 자녀수는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성과 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부모됨의 동기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성과 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수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러한 대가를 능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됨을 선택한다.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문제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줄 만한 근거를 찾게 되는데, 예컨대 자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 관계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의 지위를 부여해주며,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 그리고 가계계승을 통한 영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는 등 자신이 부모됨을 선택한 동기를 파악한다. 개인은 성인기에 접어들면 Erikson(1950)이 주장한 성인기의 생산성(*generativity*) 개념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부모됨의 동기는 자녀를 갖기 이전에 형성되어 부모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Bigner, 1985).

Gerson과 Berman(1991)이 Kirchner와 Seaver(1977)의 '부모됨의 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 20, 30대의 남녀 188명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30대보다 20대가 높았으며, 여성들은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이나 자극과 자부심 획득과 같이 긍정적 동기를 가지 있게 인식한 반면, 남성들은 출산의 위험, 사회적·개인적 제약,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등 부정적 동기를 중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Morahan-Martin(1991)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연속성·전통·안전의 동기, 부모기의 역할 동기,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의 동기,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의 동기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의 부모관이 여학생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Gerson(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의 자기애, 자존감, 부성애에 대한 기억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어머니됨의 동기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국내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부모됨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의 동기를 분석하고, 이들의 동기를 기혼 성인들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별 선호와 임신 동기 간의 관계를 조사한 박경애(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임신 동기는 경제력,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가계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사의 조력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한편 유안진과 김연진(1987)은 부모가 되려는 일반적 동기를 부모로서의 사회적 지위 획득, 자기확충 또는 자아확보감, 애정의 충족, 정서적 안정, 운명적 동기, 가계계승의 동기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유안진과 신양재(1993)는 서울, 인천, 춘천 지역의 46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조사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즉, 부모됨을 통하여 성인 정체감이나 부부 및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 요인,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연장,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연장 요인, 자녀출산, 성장을 통해서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창조·성취감 요인, 집안이나 사회의 존속, 계승을 위한 전통성 요인, 자녀를 통해서 혈연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일차적 집단 유대감 요인 등 다섯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인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창조·성취감 요인이 가장 높고, 사회적 지위 요인이 가장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 때문에 부모가 되기보다는 개인·심리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위 요인, 자기연장 요인, 전통성 요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요

시하는 반면, 창조·성취감 요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요시함도 발견하였다. 한편 유계숙과 정현숙(2002)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3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자녀를 출산하려는 동기는 크게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영속적 동기로 구분되며, 다섯 가지 동기 중 영속적 동기를 제외하고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됨의 영속적 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됨, 즉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는 개인의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1)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크게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이들 네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소득 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교육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육구 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04년 현재 28.9세로 높아졌다.

둘째로 자녀의 편익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등 자녀 요인과 관련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은 1997년 9.4%에 불과했지만 2003년 12.6%, 2005년 34.9%를 기록하여 무자녀에 대한 선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비용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8.7%에서 2003년 11.4%로 2.7% 증가하였다. 특히 사교육비는 2004년에 64.6%를 기록해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의 56.0%에 비해 8.6%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노후에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장의

형태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셋째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남아선호사상도 퇴조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직장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신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은 2006년 현재 남성 30.9세, 여성 27.8세로 1990년에 비해 평균 3.0세 정도 증가하였는데(통계청, 2007), 이는 20대 초·중반의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을 단축시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직장 요인을 살펴보면,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줄어들면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가사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미혼 직장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며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하다. 20대 어머니의 70~80% 정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1995년 48.4%에서 2006년 50.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7). 그러나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을 때, 3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경제참여율이 M자형을 나타냄으로써 대체로 이 연령대에서 혼인이나 출산과 동시에 경제참여율이 급격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경우 아직까지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증가하는 양성 평등적 사고나 자아실현에 대한 육구는 기존의 전통적 사회규범과 갈등을 일으켜 결혼 및 출산 연기의 선택을 가져오는 것이다. 변화되지 않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와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미흡은 가임여성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장보현·유계숙, 2006).

이밖에도 최근 들어 불임 또한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가구는 1990년 현재 25만 가구에서 2003년 현재 약 64만

가구(14.5%)로 추정됨으로써 156%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불임치료비용이 고액이고 치료기구의 대부분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품으로 불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으며, 불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김승권, 2003). 또한 과거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에 정부지원의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부부가 재혼 혹은 추가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원수술이 고액이며 건강보험 적용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영자, 2005). 현재 여성들의 고령임신으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 계획된 출산을 위한 피임방법의 사용 증가,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불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불임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 결국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불임치료의 장애가 되고, 이것이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장보현·유계숙, 2006).

한편 1990년 이후 한국 저출산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직장 요인 > 자녀 요인 > 소득 요인 > 가치관 요인' 순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요인'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을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요인'이 '자녀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은 낮은 출산율 하나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이다. 우선 낮은 출산율은 노동인구의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196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유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 인구구조 형태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노동력구성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전체 인구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계층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상당수를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구성하게 된다(이인재, 2005).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두 번째 문제는 경제성장을 둔화의 가능성이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가 재정적자의 확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가져오며 산업 측면에서는 인구구성변화에 따른 소비구조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 또한 저축률이 저하되고 투자가 감소되고, 노동력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악화될 수 있다(장석인 등, 2005).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노인 인구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엄동욱 등,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와 함께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한명 당 노인부양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부양의 주체인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악화를 불러와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률 저하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학교라 할 수 있다. 출산률이 저하됨에 따라 학생수의 감소로 많은 교육기관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여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05)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05년 총인구 대비 21.8%인 10,537천명 수준이며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10.8%인 4,563천명으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점진적인 축소는 직접적으로 학교재정의 감소, 휴유 시설의 증가, 과원교육의 발생, 학교의 통·폐합의 문제 등을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학교는 운영 인력과 경비를 축소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교사와 교육과정을 축소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수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집중과 교육투자를 증대시키는 경향으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체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됨으로써 학력 인플레이션상이 극심해질 것이므로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영자, 2005).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농촌 공동화 현상 등의 지방도시에서 더욱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지방도시 학교의 학생 수 급감이나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한 아이 가정'을 증가시키면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소자녀화 현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부모의 과잉보호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부모의 이러한 과잉보호는 가족 간의 역할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며 권위 형성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자녀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이 성인까지도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경제 성장과 관련되는 것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은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조사보다 크게 증

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로 나열했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우,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각자 스스로 책임(19.8%),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19.2%)의 응답은 각각 20%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개인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부양능력이 감소하여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됨의 동기는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이 향후 출산할 자녀수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의 무자녀 대학생 100명(남 50명, 여 50명)과 만 30세~49세에 있는 기혼의 성인 응답자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유목적적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과 성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이들 연령의 평균은 대학생의 경우 21.42세, 성인의 경우 40.03세였으며, 출생 순위는 대학생이 첫째 51%, 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200)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령집단	대학생(n=100)	성인(n=100)
성별 빈도(%)	남(n=100)	50(50)	50(50)
	여(n=100)	50(50)	50(50)
만 연령(세)	평균(표준편차)	21.42(2.20)	40.03(5.65)
출생순위 빈도(%)	첫 째	51(51)	35(35)
	둘째이하	13(13)	44(44)
	막 내	31(31)	20(20)
	외 동	5(5)	.
결혼상태 빈도(%)	미 혼	100(100)	.
	기 혼	.	99(99)
	이혼, 사별, 기타	.	1(1)
자녀 수(명)	평균(표준편차)	0(.00)	1.62(.81)
학력 빈도(%)	고졸이하	.	36(36)
	대학재학, 대학졸업	100(100)	55(55)
	대학원 이상	.	8(8)
직업 빈도(%)	학 생	100(100)	.
	전문직	.	38(38)
	사무직	.	24(24)
	판매·서비스직	.	3(3)
	자영업	.	9(9)
	노동직·농림어업	.	7(7)
	전업주부	.	14(14)
	무 직	.	.
	기 타	.	4(4)
한달평균수입(만원)	평균(표준편차)	382.12(173.33)	320.93(140.19)
종교 빈도(%)	무 교	41(41)	25(25)
	불 교	11(11)	8(8)
	기독교	36(36)	59(59)
	천주교	11(11)	7(7)
	기 타	1(1)	1(1)

주: 각 변인에 대한 사례 수는 무응답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째 이하 13%, 막내31%, 외동 5%였으며, 성인은 첫째 35%, 둘째 이하 44%, 막내 20%, 외동 0%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유목적적 표집에 의하여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자녀가 100%였으며, 성인의 경우 기혼자가 100%, 자녀가 있는 사람이 86%이고, 이들이 가진 자녀수의 범위는 0명에서 3명이며, 평균 자녀수는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36%, 대학재학·대학졸업 55%, 대학원 이상이 8%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문직 38%, 사무직 24%로 화이트칼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각 가정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총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평균 343.99만원이었고, 대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382.12만원, 성인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320.93만원으로 대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다소 높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무교가 41%, 성인은 기독교가 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됨의 동기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성인의 부모됨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계숙과 정현숙(2002)의 부모됨의 동기척도 20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동기의 유형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3문항, '전통적·규범적 동기' 6문항, '부부 결속적 동기' 3문항, '이타적·정서적 동기' 5문항, '영속적 동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각 유형의 동기에서 얻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해당 동기를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2)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척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대학생과 성인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보현과 유계숙(2006)의 저출산의 원인척도를 기초로 총 8개 문항의 5점 척도를 작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결혼율의 감소', '노동 시장의 불안정',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 '교육비용의 부담', '일-가정의 양립곤란',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원인을 포함하며, 각 문항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해당 문항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인식척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학생과 성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승권, 2003; 김용익, 2005; 박숙자, 2003; 안명옥, 2004)을 기초로 총 7개 문항의 5점 척도를 작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노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및 성장 잠재력 저하', '인구의 고령화', '노인복지비용의 증가',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를 포함하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을 저출산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4) 향후 계획한 자녀수

남녀대학생이 향후 계획하는 자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향후 자녀출산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계획한 아들과 딸의 명수를 각각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6년 9월 18일부터 29일 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목적적 편의표집 방법으로 총 100명의 미혼 무자녀 대학생과 100명의 3, 40대 기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00부의 설문지가 모두 회수되었다. 회수된 200부 중 부실기재된 설문지가 없었으므로 전 부수 모두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출생순위, 결혼유무, 학력, 직업, 종교 등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 자녀수, 한달 평균 수입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향후 계획 자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동기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자녀를 출산

<표 2>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N=200)

부모됨의 동기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부모됨 동기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 값		
	남자성인 (n=50)	남자대학생 (n=50)	남자전체 (n=100)	여자성인 (n=50)	여자대학생 (n=50)	여자전체 (n=100)	성인전체 (n=100)	대학생전체 (n=100)	성 별	세대집단	성별×세대 집단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2.98	3.22	3.10	2.78	3.44	3.11	2.88	3.33	.017	12.750***	2.777
전통적 규범적 동기	2.59	2.23	2.41	2.82	2.49	2.66	2.71	2.36	6.483*	12.727***	.031
이타적 정서적 동기	3.50	3.54	3.52	3.67	3.83	3.75	3.59	3.68	5.510*	.971	.390
부부 결속적 동기	3.70	3.26	3.48	4.01	3.39	3.70	3.85	3.33	3.019	17.304***	.543
영속적 동기	3.06	2.69	2.87	3.08	2.40	2.74	3.07	2.54	.891	13.482***	1.226

*p<.05, ***p<.001

하려는 주 이유는 '이타적·정서적 동기'나 '부부결속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가장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자녀를 출산하려는 이유로서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집단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성인에 비하여 '혈연적·유대강화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성인은 자녀출산의 동기로서 '부부결속적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영속적 동기'를 대학생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대학생이 성인보다 다소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부모됨의 동기 전반에서 성별과 세대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과 '교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여러 가지 원인 중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하여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일-가정의 양립곤란', '결혼율의 감소',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가치관의 변화', '교육비용의 부담',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 모든 요인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대집단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출산·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과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자녀양육 비용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유일하게 성별과 세대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p=.038$), Scheffé 검증 결과, 경제활동 및 가족부양의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이나 대학생에 비하여 '출산·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표 3>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인식

(N=200)

저출산 원인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 값		
	남자성인 (n=50)	남자대학생 (n=50)	남자전체 (n=100)	여자성인 (n=50)	여자대학생 (n=50)	여자전체 (n=100)	성인전체 (n=100)	대학생전체 (n=100)	성 별	세대집단	성별×세대 집단
가족 가치관의 변화	3.58	3.82	3.70	3.88	4.06	3.97	3.73	3.94	5.426*	3.283	.067
결혼율의 감소	3.54	3.32	3.43	3.80	3.82	3.81	3.67	3.57	12.559***	.870	1.252
노동시장의 불안정	3.34	3.86	3.60	3.96	4.02	3.99	3.65	3.94	9.311**	5.173*	3.233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	3.82a	4.32b	4.07	4.30b	4.32b	4.31	4.06	4.32	4.354*	5.110*	4.354*
교육비용의 부담	3.88	4.18	4.03	4.30	4.32	4.31	4.09	4.25	5.261*	1.718	1.315
일-가정의 양립곤란	3.58	3.50	3.54	4.10	3.90	4.00	3.84	3.70	14.234***	1.319	.242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	2.86	2.52	2.69	3.62	3.19	3.41	3.24	2.85	29.895***	8.755**	.126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3.06	2.30	2.68	3.48	3.08	3.28	3.27	2.69	23.602***	22.055***	2.124

*p<.05, **p<.01, ***p<.001

주: 같은 행의 문자 a, b는 Scheffé 검증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4>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N=200)

저출산 결과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른 저출산 결과에 대한 인식 평균								변량원의 F 값		
	남자성인 (n=50)	남자대학생 (n=50)	남자전체 (n=100)	여자성인 (n=50)	여자대학생 (n=50)	여자전체 (n=100)	성인전체 (n=100)	대학생전체 (n=100)	성별	세대집단	성별×세대 집단
노동인구 감소	3.86	3.78	3.82	4.02	3.92	3.97	3.94	3.85	1.402	.505	.006
경제성장률 및 성장잠재력 저하	4.04	3.68	3.86	4.06	4.00	4.03	4.05	3.84	1.972	3.009	1.535
인구의 고령화	4.14	4.08	4.11	4.32	4.36	4.34	4.23	4.22	4.111*	.008	.194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	4.02	3.82	3.92	4.28	4.16	4.22	4.15	3.99	7.333**	2.116	.142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3.60	3.18	3.39	4.14	3.74	3.94	3.87	3.46	23.226***	12.929***	.006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3.32	2.78	3.05	3.82	3.29	3.56	3.57	3.03	17.667***	20.159***	.001
자녀양육의 문제	3.58	3.40	3.49	4.04	3.60	3.82	3.81	3.50	7.510**	6.628*	1.166

*p<.05, **p<.01, ***p<.001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 '노인복지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집단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해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인구 감소'나 '경제성장률 및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에서는 성별이나 세대집단에 따라서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에 걸쳐서 성별과 세대집단 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향후 출산할 자녀수

대학생들이 향후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인지 질문한 결과, 대학생이 향후 계획하는 총 자녀수는 2.27명이

<표 5> 남녀 대학생이 향후 출산하고자 하는 자녀수 비교

(N=100)

계획한 자녀수	집 단 남학생 평균 (표준편차)	여학생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표준편차)	t값	계획한 자녀수 빈도(%)			
계획한 아들 수(명)	1.29 (.771)	1.04 (.402)	1.16 (.621)	2.014*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획한 딸 수(명)	1.13 (.789)	1.08 (.444)	1.10 (.634)	.350	2 (2)	4 (4.1)	73 (74.5)	21 (19.4)

*p<.05

었으며, 자녀를 한명도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체 대학생의 2%에 불과하였다. 무자녀를 선택한 대학생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으로 대부분의 대학생이 자녀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명을 낳겠다는 응답자는 4.1%, 2명을 낳겠다는 응답자는 74.5%, 3명을 낳겠다는 응답자는 12.2%, 그리고 4명 이상을 낳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대학생의 7.1%로 나타남으로써 대다수 대학생들이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향후 이들이 출산하고자 하는 아들과 딸의 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이 계획한 아들 수는 1.29명, 딸 수는 1.13명이었으며, 여학생이 계획한 아들 수는 1.04명, 딸 수는 1.08명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향후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 대학생 모두 향후 계획하는 딸의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계획한 남아의 수에 있어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하여 0.25명의 아들을 더 낳고자 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이 여학생에 비하여 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됨의 동기에서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녀를 출산하려는 이유로서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대학생은 성인에 비하여 '혈연적·유대강화 동기'를, 그리고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부부결속적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영속적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저출산의 원인에 대하여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모든 저출산 관련요인들에 대하여 남성보다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성인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출산·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그리고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과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 및 가족부양의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성인 남성은 성인 여성이나 대학생에 비하여

'출산·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 '노인복지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해서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자 대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향후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계획이며, 특히 계획한 남아의 수에 있어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하여 0.25명의 아들을 더 낳고자 하는 남아선호경향을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혼 무자녀 대학생과 기혼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됨의 동기,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성별과 세대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이 향후 출산할 자녀수는 남녀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규범적 부모됨의 동기'를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유안진·신양재, 1993; Morahan-Martin, 1991) 결과와 상반된다. 그런데 또 다른 선행연구(유계숙·정현숙, 2002)에서는 '전통적·규범적 부모됨의 동기'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연구시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 '전통적·규범적 부모됨의 동기'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이타적·정

서적 부모됨의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은 선행연구(Gerson & Berman, 1991)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정서적 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성인에 비하여 자녀출산의 이유로 '혈연적·유대강화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기혼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부부 결속적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영속적 동기'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성인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경험한 반면, 대학생들은 주로 원가족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연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성인들은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가 부부를 결속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을 경험하고, 대학생에 비하여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보다 오래 경험해왔으며, 자신의 가계·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자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성인의 '부부 결속적', '전통적·규범적', '영속적' 자녀출산의 동기가 대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한 순으로 제시하면,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영속적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유계숙·정현숙, 2002)와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이타적·정서적 부모됨의 동기' 수준은 대학생과 성인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Erikson(1950)의 성인기의 생산성(generativity)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기혼 성인 두 집단 모두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는 부모역할수행의 발달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세대차보다 성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일·가정의 양립곤란', '결혼율의 감소',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가치관의 변화', '교육비용의 부담',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 모든 요인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여성 차별적인 전통적 가족규범'과 '임신·출산 건강수준 저하' 등 생리적·부모역할 측면에서 여성이 겪는 불이익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임신과 출산 당사자가 여성이며,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의 부담(최숙희·김정우, 2005), 여성이 결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남성보다 적은 점 등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출산·양육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만혼의 영향으로 부부 10쌍 중 1~2쌍이 자녀

를 출산할 수 없는 불임부부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연합뉴스, 2004.10.11),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연합뉴스, 2007.2.12),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의 요구가 증가하는 저출산의 원인적 배경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임여성근로자를 위한 휴가·휴직제도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생은 성인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출산·자녀양육비용의 부담' 등 소득 불안정성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의 틀 안에서 각자 경험한 바에 근거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 수 자체보다 양육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과 달리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고, 이러한 불안감이 성인에 비하여 소득 불안정성과 경제적 비용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사회의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녀양육·교육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과 세대의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및 가족부양의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성인 남성이 대학생이나 성인 여성에 비하여 '출산·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자녀양육비용 수입원의 주체가 아니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인식수준을 보이는 반면, 기혼 성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출산·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출산·자녀양육비용의 주 수입원인 기혼남성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비하고 지출하는 기혼여성의 비용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여성과 기혼 성인들이 남성과 대학생에 비하여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부양 등으로 세대갈등 심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저하와 평균수명의 제고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노인부양과 자녀양육·교육의 책임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이나 기혼의 성인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

하고, 그로 인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증추를 담당하고 있는 30, 40대는 자녀 사교육, 노부모 부양, 자신의 노후 대비 등을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연합뉴스, 2007.2.13). 이처럼 '샌드위치 세대'인 기혼 유자녀 성인들의 어려움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기혼 성인들의 저출산 관련 사회문제 인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들 중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63.4%로 1998년의 89.9%, 2002년의 70.7%에서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 부양이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6.4%로 2002년 조사 때의 18.2%보다 6% 정도 증가함으로써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 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 부양의 문제는 더 이상 성인 자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성인들의 일자리나 자녀의 교육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여성이나 기혼의 성인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들이 미혼의 자녀가 없는 대학생과 달리 양육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한 인성·사회성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소황제'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한명만 낳다보니 과보호하게 되고, 부모·자녀 등 가족 간의 권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자기중심적이고 의존적인 아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기혼의 성인들이 노부모 부양과 자녀 출산 및 양육·교육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형성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응답에 따르면, 향후 계획하는 총 자녀수는 2.27명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간 더 많은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녀 대학생 모두 향후 계획하는 딸의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계획한 남아의 수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보다 0.25명의 아들을 더 낳고자 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남아선호사상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의 예비출산군인 대학생들이 2명 정도의 자녀를 계획하며, 무자녀를 선택한 대학생이 전체 100명 중 2명이라는 결과는 인구대책에 매우 고무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이들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향후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결혼이나 자녀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 나타난 2.27명의 자녀계획은 이들이 결혼한 후나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면서 수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 대학생의 남아선호 경향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성인에 비하여 '혈연적·유대 강화 동기'에 의하여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은 향후 대학생 대상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적 부모교육이나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재학생과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 사회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인식과 정책적 수요에 보다 부응하는 저출산 관련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저출산 관련 사회인식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부모됨의 동기,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저출산 전망, 혼인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등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인구 대체수준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1990년대까지도 정부나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연합뉴스, 2007.2.12). 이러한 정책적 안일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출산율 저하에 선행하는 성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접수일 : 2007년 08월 03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7일

【참 고 문 헌】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년 12월호, 6-21.
- 김용익(2005).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보건복지포럼**, 2005년 4월호.
- 김태현·손준중·김지경·박강용·김혜환(2006). 초·중등 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수미(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보건복지부(2006).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1월 23일 주간보도자료.
- 안명옥(2004).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엄동욱 외(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인적자원관리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연합뉴스(2004). 신한銀, 불임 여직원 1년 휴가 추진. 2004. 10. 11.
- _____ (2007). 기획탐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령화 속도 너무 빠르다(종합). 2007. 2. 12.
- _____ (2007). 기획탐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부모 부양 전통 변화한다. 2007. 2. 13.
- 유계숙·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안진·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유안진·김연진(1987).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운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83-291.
- 이인재(200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 장보현·유계숙(2006). 저출산 대책의 가족영향평가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4(6), 161-176.
- 장석인·서동혁·정은미·김정유(2005). 미래의 산업발전과 국가전략의 모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조영자(2005).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Erikson, E.(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Bigner, J. J.(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Gerson, M. J.(1986). The prospect of parenthood for women and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0(1), 49-62.
- Gerson, M. J. & Berman, L. S.(1991).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s an aspect of adult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3), 327.
- Kirchner, E. P. & Seaver, B.(197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 Morahan-Martin, J.(1991).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 통계청 <http://www.nso.go.kr>.